

2014 1. 12 주님 세례 축일

제 1 독서 : 이사야 42,1-4.6-7 <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

제 2 독서 : 사도행전 10,34-38 <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복 음 : 마태오 3,13-17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 오시는 것을 보셨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세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 1 독서에서는 이사야에언자가 “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여 주는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고 하십니다. 사전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 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말로로는 보통 정의로 번역이 됩니다. **공정**이라는 말이 우리 국어 사전에는 **정당한 것, 공평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공정을 펴시는 분으로 예언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공정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설명이 혹시 여러분에게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정의란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짓을 하는 자,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공정의 뜻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공정은 선 과 악이 확연히 구분되어 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공정은 선 과 악이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안 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하는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갈랐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갈랐던 것입니다. 악은 부정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죄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강조 합니다. 악을 단지 배척하고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버립니다. 평생토록 주홍글씨를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주홍글씨를 깨끗이 지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일치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헐담을 하면 우리는 함께 쌍욕을 하며 복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 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일 것 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됩니다. 신앙안에서 우리는 그런 욕구를 억누르고 나에게 헐담과 욕을 하는 자를 감싸안고 선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처럼 우리도 용서와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안에서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하였지만 같이 욕을 하게되면 저의 마음만 더 아플 따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아질수있는 기회를 주지 못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됩니다. 신약의 루가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의 비유를 잘 살펴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집으로 되돌아 갈때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 입니다. 즉 작은 아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고, 자신을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장례미사를 집전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오지 못했을 사람이 오는 경우를 봅니다. 죽기전까지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형제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가족들에 의해서 장례미사를 성당에서 하는 경우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공동체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세례축일을 보내며 내가 아직도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분의 사랑에 일치하여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느님이 왜 그들을 벌하시지 않는지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구약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구약의 공정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용서 하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분을 생각하며, 그 분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신 그 분의 바른길을 따라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나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녀들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요청하십니다. 어떤 꾸밈도 없이 바로 그 분의 겸손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 하시면서 제자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과 사랑으로써 일치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안에 머물러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또한 우리의 자유에 맡기시고, 우리가 허락 할때 서야 비로서 그분의 역할을 수행 하십니다. **그 크신 분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허락을 드린다면, 그래서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 드린다면, 우리를 비난하고 잘못을 하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진리의 길에 들어설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 질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축일을 지내며 이 미사중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충만히 받은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삶을 살 수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4.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3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고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4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6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7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8

그 무렵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36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37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38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3-17

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15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16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